

# 광주 28개 기업 ‘CES 2026’서 혁신기술 선보인다

## 市, 광주공동관 운영 제품·서비스 공개 7개 지역기업 ‘CES 혁신상’ 수상 성과

광주시가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기업을 지원, 광주의 혁신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광주시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광주공동관을 운영한다. 광주시 지원 기업 17개 사를 포함한 지역 혁신기업 28개사가 참가한다.

광주시 지원 기업은 ㈜인비즈, 데이터투에너지, 이노디테크㈜, ㈜엘비에스테크, 제로웰㈜, ㈜스페이스에이아이, 주식회사 영엔, ㈜유니컴퍼니, 주식회사 정선메드, 주식회사 메리헨드, 유한책임회사 센도리, 맨인블록 주식회사, 주식회사 울더타임, 주미당, 주식회사 사각, ㈜벨리오니스, 브레인웍스㈜ 등 총 17개 사다.

CES는 정보기술(IT),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전 세계 160여개 국가에서 4천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망 스타트업 등 1천여개사가 참가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7월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교육과 CES 혁신상 상담 등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이번 ‘CES 2026’에서 광주시 지원 기업 5개사를 포함한 지역 기업 7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처음 신설된 ‘여행&관광(Travel&Tourism)’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엘비에스테크는 AI 기반 차량-보행로 연결 설계 시스템을 개발해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구현했다.

이노디테크㈜는 치과 투병교정치료를 위한 AI 기반 분석-진단-치료계획 지원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수만건의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를 학습해 3D 구강 스캔으로 치과 치료 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다.

주식회사 울더타임은 여성 안전을 위한 AI 기반 안전 플랫폼 ‘더가이드’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for All)’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체형 AI 상담과 모션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구조 요청 기능 등을 통해 여성 안전을 강화했다.

이 밖에 고스트페이스㈜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인디제이, 마인스페이스㈜, ㈜답센트 등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혁신상을 수상했다.

광주공동관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이 공개된다.

맨인블록 주식회사는 인하대병원과 공동개발한 ‘생체형 AI 기반 환자진료 실습’ 등 프로젝트 3종을 선보이며, ㈜스페이스에이아이는 생체형 AI 기반 감성 인터랙션 플랫폼 ‘리플리켓’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 창작 서비스를 소개한다.

강기정 시장은 “AI 실증밸리를 기반으로 조성한 광주의 산업 생태계가 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안전분야 전반에서 세계적 수준의 결실을 맺고 있다”며 “세계 경향과 발맞춘 광주의 전략이 지역 기업을 세계시장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CES 현장에서 광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혁신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가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광주공동관을 운영, 광주시 지원 기업 17개사를 포함한 지역 혁신기업 28개사가 혁신기술을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CES에서 운영된 광주공동관 모습. <광주시 제공>

을 수상했다. 수만건의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를 학습해 3D 구강 스캔으로 치과 치료 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다.

주식회사 울더타임은 여성 안전을 위한 AI 기반 안전 플랫폼 ‘더가이드’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for All)’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체형 AI 상담과 모션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구조 요청 기능 등을 통해 여성 안전을 강화했다.

이 밖에 고스트페이스㈜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인디제이, 마인스페이스㈜, ㈜답센트 등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혁신상을 수상했다.

광주공동관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이 공개된다.

맨인블록 주식회사는 인하대병원과 공동개발한 ‘생체형 AI 기반 환자진료 실습’ 등 프로젝트 3종을 선보이며, ㈜스페이스에이아이는 생체형 AI 기반 감성 인터랙션 플랫폼 ‘리플리켓’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 창작 서비스를 소개한다.

강기정 시장은 “AI 실증밸리를 기반으로 조성한 광주의 산업 생태계가 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안전분야 전반에서 세계적 수준의 결실을 맺고 있다”며 “세계 경향과 발맞춘 광주의 전략이 지역 기업을 세계시장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CES 현장에서 광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혁신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주민이 주인공’ 서구 신년인사회. 6일 광주 서구는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이 무대에 올라 ‘서구를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을 하며 서구의 변화를 직접 전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광주 서구 제공>

## 광주 소방공무원 44명 신규 채용…내달 2-6일 인터넷 접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6일 “올해 소방공무원 4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인원은 공개경쟁채용 34명(화재진압 분야 2명, 경력경쟁채용 10명(구급 분야 4명, 구조 분야 2명, 관련학과 졸업자 4명)이다.

원서는 2월2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접수한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 지역·분야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채용시험은 필기시험(3월7일), 체력시험(3월30일-4월5일), 면접시험(4월27일-5월1일) 순으로 진행하며 오는 5월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변은진 기자

## 영암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속도

### 道, 국비 24억 확보…2031년 개소 목표 떨어짐·끼임·화재·폭발 체험존 등 조성

전남도가 올해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끼임·화재 등 위험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해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체득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안전체험교육장은 2028년 착공해 2031년 1월 개소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50억원 규모로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한다.

안전체험교육장에는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 VR 가상안전체험관이 조성된다. 특히 조선업 특화 체험시설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9월까지 전남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38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대불산단에서는 크레인 중량물 이탈, 지게차 충돌, 블록 낙하 등 고위험 작업에 따른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대불산단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언어 장벽으로 기존 이론 중심 안전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체험형 안전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 논의됐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으로 전남에는 담양·여수에 설치돼 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조선업·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불산단의 맞춤형 교육장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올해 국비 반영을 이끌어냈다.

배준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 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일 것”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 전남농기원, 굼벵이 활용 ‘다이어트 젤리’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6일 “유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이하 굼벵이)을 활용해 이취를 저감하고 물 없이도 섭취가 가능한 다이어트용 젤리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는 최근 다이어트 및 체중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항비만 효과가 보고된 굼벵이를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 곤충 소재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공식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굼벵이 특유의 이취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기능성과 기호성을 함께

고려한 가공식품이다. 특히 기존 환이나 과립 형태로 제한됐던 굼벵이 섭취 방식을 젤리형 제품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윤지 곤충잡업연구소 연구사는 “굼벵이 소재를 활용한 젤리형 제품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기술 이전과 현장 적용을 통해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곤충산업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 [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1차 15가구>  
**성황리 입주완료**

<2차 6가구>  
**입주완료**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율80%)  
**분양가 : 3.3㎡/45만원**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기술지도)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

CMYK